

# 설 명 자 료

- 제공일 : 2005. 6. 1.
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장 기 윤
- 전 화 : 02-500-1936

이 자료는 2005년 6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 제목 : OIE, BSE 발생국산 쇠고기 교역제한 완화키로

- 농림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(OIE) 총회('05.5.22~27)에서 BSE(광우병)가 발생하는 나라라도 뼈가 없는 쇠고기는 일정한 조건하에 교역할 수 있도록 BSE 관련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.
- 금번 개정으로 뼈가 없는 살코기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불구하고 BSE에 걸리지 않은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특정위험물질(SRM)을 제거하고 고기가 SRM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될 경우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되었음
- ※ 제73차 총회에는 167개 회원국중 145개국에서 약 600명의 대표가 참석
- OIE의 당초 개정안에는 「뼈를 제거한 모든 살코기(골격근육)」는 조건 없이 자유교역 품목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, 각국의 이의제기로 “BSE에 걸리지 않은 30개월령 이하의 소 등” 안전조치가 추가된 수정안으로 확정하게 되었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다.

- 참고로 이번 BSE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것으로 작년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었고 금년에도 반대하였지만 표결 결과 대다수 국가들의 찬성으로 개정된 것임
- 동 개정안은 OIE주도로 국제 BSE 전문가들이 수년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, 소의 골격근육과 혈액이 BSE를 전파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은데 근거를 둔 것임

### 《 BSE관련 OIE 동물위생규약 개정내용(요약) 》

제2.3.13.1조 다음의 품목을 수입할 때 수입국의 수의당국은 수출국 BSE 상황과는 상관없이 BSE관련 조건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됨

- 도살과정에서 고압공기주입법 등을 사용하지 않고, 생체 및 해체검사를 받았으며, BSE로 의심되거나 확진(確診)되지 아니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되고 SRM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된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(기계적으로 분리한 식육제외)
- 도축과정에서 고압공기주입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소에서 유래된 혈액 및 그 제품